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6호 [국제 제25665호] 주재 106 (2017)년 6월 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김원홍동지, 리영길동지, 조남진동지, 조정철동지, 김광혁동지, 손철주동지가 맞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비행장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이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가 되자!》, 《모두다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 전법에 정통하자!》,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라는 구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이라는 글씨가 세워져 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를 시찰하시였다.

경기대회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불변불후의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적항



을 새기었으며 추격기들이 기교비행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여러가지 기교비행동작들을 잘 수행한다고, 멋있다고, 과학적인 조종과 완벽한 비행술을 남김없이 펼쳐 보여주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의 뒤를 이어 사단장, 여단장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에 날아올라 타격목표소멸, 비행장상공 초저공비행 및 상승회전, 착륙 등을 멋들어지게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협곡항로를 따라 30m 초저공비행을 진행하다가 도약하여 불의에 목표를 타격하는데 실전에 절실히 필요한 비행술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부르며 제일먼저 날을 수 있게 준비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깊이 새기고 평시에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특히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의 비행술이 대단히 높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공군강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려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뜻이 손들 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김광혁 항공군상장이 개회사를 하시였다.

그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은 모든 비행지휘성원들을 명령만 내리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맨 앞장에서 출격하여 적항공모함을 비롯한 그 어떤 대상물들도 일격에 소멸해버릴수 있는 일당백의 불사조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전군을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완성

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뜻깊은 훈련경기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이 되는 력사의 날에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한 항일혁명선열들이 보천보의 밤하늘에 혁명의 횃불을 지펴올린것처럼 남녘해방의 그날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머리에 불을 지르고 최후승리의 전격로를 제일먼저 개척해나갈 용감무쌍한 김정은비행대의 전투적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의 개최를 선언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가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석단앞에 정렬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리시고 감시소에 오르시여 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경기대회는 사단장, 여단장조, 추격기, 폭격기, 습격기면대장조, 경수습기, 직승기, 교육기면대장조, 비행사양성기관을 갖 줄일한 젊은 비행사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경기대회순위는 리륙, 습격, 초저공 및 회전, 요격비행, 자유공중전투, 착륙 등을 판정요소로 정하고 각종 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경기대회의 시작과 함께 경비행기들이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창공높이 날리며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비행운

을 울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멘트 불출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구름속을 뚫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오른 권대장들과 젊은 비행사들도 쌍기리륙, 습격, 30m 초저공비행 및 쌍기상승회전, 자유공중전투비행, 착륙 등을 훌륭히 진행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고 평시에 편마해온 비행술과 무지비한 타격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만리대공에 멀찍이 비행운을 자랑스럽게 새겨가게것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일련한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은 물론 비행수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비행사들이 최우수 전투비행사와 비행술을 겨루고있는데 비행기를 잘 탄다고, 그들속에 처녀비행사들도 있는데 정말 용감하고 하시면서 전세대 전투비행사들처럼 불굴의 정신력과 결사관철의 무장기공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 새 세대 전투비행사들이 있기에 항공군의 승리의 전통은 출기차게 이어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지렬하고 열띤 경기모습을 보시며

오늘 경기대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경기대회들중에서 제일 잘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기대회를 장식하며 기교비행이 또 다시 진행되였다.

속포가 터져오르고 관람자들의 열광의 환호로 하여 경기대회장은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의 동승이 높이 울려 퍼지는 조국의 명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전투비행사들이 있기에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항공군안의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의 불가마솥에서 비행훈련을 정상화,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일단 최후공격명령이 내리면 일격에 대지를 박치고 날아올라 짐략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버릴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심야야 활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새 세대 전투비행사들의 전투적기상과 용맹을 과시한 젊은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경기대회 순위를 발표하였으며 우수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을 수여하였다.

경기대회는 노래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의 주악으로 끝났다.

경기대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리쳐올린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의 축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6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주체적혁명국건설에서 특기

할 사변적성과들이 다발적으로, 권발적으로 일어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 2017》은 당의 혼련력명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군에 백두산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리면 사회주의조선의 정의로운 진군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부질없이 발버둥칠지는 쉼천지원수 미제와 그 줄개들에게 무자비한 정벌의 불을 지르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열적의 의지를 다시한번 힘있게 파시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지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높이 폭풍노도쳐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온 나라 천만군민은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맹활무방한 지휘밑에 진행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고 온 겨레를 조국해방전쟁전선으로 불러일으킨 역사적장기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세계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서 거대한 의의

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탁월한 수령의 명도밑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싸우는 인민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한다는 진리를 새겨온 보천보의 불길은 장강 80성상 꺼질줄 모르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히는 투쟁의 피 불로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3일 광강도에순국장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고 이

방우에 자주, 지필, 자위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루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만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마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의 운명은 오직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걸사옹위하자!》, 《주체의 혁명전풍을 빛내세 계승발전시키자!》 등의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성, 중앙기관, 교육 부문 일꾼들, 근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객이 참가하는 당선전일꾼들, 216사단 일꾼들과 돌격대원들, 향강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김기남동지, 리명수동지, 최운혁사를 불러주신 유산이었다. 그것은 천만군민에게도 비길수 없는 향으로 고귀한 우리 혁명의 유산이었다.

아드님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한 애국자로,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시어 나라와 민족의 밝은 전도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김형직선생님의 크나큰 공적을 우리 아예 잊을수 없으리라.

지친의 사상과 3대교육, 동지회독에 대한 사상과 두자부의 권솔, 바로 이것이 김형직선생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불려주신 유산이었다. 그것은 천만군민에게도 비길수 없는 향으로 고귀한 우리 혁명의 유산이었다.

목립의 그날을 향해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힘이 진하면 지평이 넓어지고 때가 고르면 생은 옮겨삼기시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나아가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생애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세원이 흘러도 못 잊는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인민을 키우고 위대한 조국을 떠들인다.

오늘도 우리 조국강선에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울려 퍼진다.

본 일꾼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고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노래》가 추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김기남동지가 보고 《보천보의 불길은 주체혁명 승리의 길을 밝히며 영원히 떠오를것이다》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양을 따라 보천보에서 떠오른 승리의 태양을 높이 추켜들고 고향없이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불러주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지역지장의 정신으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함성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

의 전군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 철리를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 따라 백두의 혁명전풍을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사상정신적태도로 흠어지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중앙보고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걸사옹위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세기를 이어 빛발치는 지원의 숭고한 뜻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생애를 더듬어보며

6월 5일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돌이켜보고 있다.

일찍이 지친의 숭고한 뜻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내세우시고 민족해방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나의 아버지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91돌의 년를 아로새기었다.

주제 15(1926)년 6월 5일 김형직선생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사형하는 자제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젠가는 나라와 민족의 불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피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김형직선생님께서 자제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친의 뜻으로 일관된 고귀한 유언이었다.

지친, 이 숭고한 피뎌는 몸이 찢겨 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 기여이 인민의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투쟁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으신 김형직선생님의 인생관이 비껴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렇듯 열렬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항쟁의 역사를 힘

난한 새벽길을 파고들며 헤쳐나갔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승진중학교를 중퇴하시고 직접적인 혁명가로 나서시던 때의 이야기는 오늘날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준다.

어느날 김형직선생님께서 강만재씨에게 자신의 원대한 뜻과 꿈을 이렇게 피력하시었다.

《...우리가 2천만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광복 하려면 밀고 힘찬 길을 지나 바다로 가는 생불사된 뜻을 밀리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위도 벼랑도 극복하며 무흔히, 완강히 싸워야 하오. 우리가 걷는 싸움의 길은 험난할것 이요. 피어린 투쟁을 각오하고 값비싼 희생도 각오해야 하오. 그러나 나는 이미 조국의 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하였소.》

그날의 맹세를 지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국내는 물론 국외의 광활한 지역을 종횡무진하시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길을 모색하시었고 동지들을 불러세워 대공적지반을 축성하시었다. 이에 도대하여 이께서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었다.

주제6(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결성하는 역사적인 회의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누구도 조선의 독립을 가져다줄수 없으며 따라서 조선의 독립은 오직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성취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리자면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결속하고 2천만 동포를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힘을 끈끈히 키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조직의

명칭과 형태, 투쟁목적과 투쟁과정, 방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조선국민회결성은 지친의 사상으로 반일애국적투쟁을 단행시키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자주적발전의 비전을 마련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었다.

민중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 원수와 싸워 나라도 찾고 좌위와 압박이 없는 새세상도 세우려 한다.

이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시던 날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그의 총적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것이였다. 지금도 조용히 쿨기 울이던 김형직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들려온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 칼부림을 하는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선다고 그 강도놈이 목숨을 살려달라는 없다 고, 짐밖에 있는 놈도 역시 강도라면 아우성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와줄리는 없다고, 제 목숨을 지키려면 제힘으로 강도놈들과 싸워야 한다고, 칼은 놓아고 하는 김형직선생님의 절절한 말씀.

무장한 원수는 오직 무장으로 때려 부셔야 한다는것은 김형직선생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역사적인 관전회에서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군분방도로 내세우신 무장투쟁은 종래의 무장투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무장투쟁이였다.

우리는 무산혁명을 지향하는것만큼 그에 맞는 무장대를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 실현에

거대한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손길아래 사라난 무장대들의 적극적인 군사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국내외에서 무장대들이 벌인 파죽연전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인민들을 반일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란 바로 이렇듯 조선인민들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위업의 개척과 승리를 위하여 더 없이 귀중한 혁명의 유산을 남기신것 이다.

아드님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한 애국자로,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시어 나라와 민족의 밝은 전도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김형직선생님의 크나큰 공적을 우리 아예 잊을수 없으리라.

지친의 사상과 3대교육, 동지회독에 대한 사상과 두자부의 권솔, 바로 이것이 김형직선생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불려주신 유산이었다. 그것은 천만군민에게도 비길수 없는 향으로 고귀한 우리 혁명의 유산이었다.

목립의 그날을 향해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힘이 진하면 지평이 넓어지고 때가 고르면 생은 옮겨삼기시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나아가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생애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세원이 흘러도 못 잊는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인민을 키우고 위대한 조국을 떠들인다.

오늘도 우리 조국강선에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울려 퍼진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신인 혁명투쟁의 신념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백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고향없이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혁명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처럼,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부의 권솔을 밀천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방우에 사회주의의 락원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조국을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나도 혁명의 총대를 물어쥐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변함없이 가려고 합니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뜻깊은 말씀은 만리마속에 빛내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힘있게 때박고 있었다.

만리마속에의 앞길을 지원의 숭고한 뜻이 빛발치고 있다.

지원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최후승리를 락관하며 용감하게 전진하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봉서 그이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우리 천만군민의 이런 확고부동한 신념에 떠안들려 무장민병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완만관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이 간고하고 중첩되는 난관을 수 없이 겪었으며 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우리는 더듬으실 때 답사단생원들의 감명을 잿다.

항일혁명투쟁역사에서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뜻깊은 고장들이 다시금 눈에 밝혀와 누구나 끌어오르는 감정을 진정할수 없었다.

답사단생원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도 알고있지만 우리 당은 혁명투쟁의 뿌리를 항일혁명투쟁의 역사에서 찾아야 하며 또 찾고있다고, 왜냐하면 항일혁명투쟁의 역사가 곧 조국해방의 역사이며 우리 당장전을 위한 혁명투쟁의 역사이며 당장전의 역사!

참으로 이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아직까지 새겨안고 추체험투쟁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충심으로 받들라고.

본사기자

